

포스코, 기가스틸 100만톤 생산 첫 발

자동차산업 메가트렌드 대응 내구성·안전성·친환경성 우수

포스코가 미래차 강판 수요 대응과 시장 선점을 위해 기가스틸 100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가스틸은 인장강도 1GPa 이상의 초고강도 경량강판으로 1mm² 면적당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고 다른 소재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어 '꿈의 자동차용 강판'이라고 불린다.

최근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 김학동 대표이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르노삼성 황갑식 구매본부장, 엠에스오토텍 이강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기가스틸 100만톤 생산체계 구축' 행사를 가졌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위주로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기가스틸 강재는 지난해 670만 톤에서 2025년 1,240만 톤으로 연평균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 차체 경량화 요구 등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약 5,0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기가스틸 제조설비를 신·증설해왔다.

먼저 포스코는 최대 0.5mm 두께까지 얇게 만들면서도 폭은 1,650mm까지 키울 수 있는 박형 전용 압연기를 도입해 타사 생산하기 어려운 폭넓은 제품까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사의 설계와 생산을 쉽게 했다.

또한 엄격해지는 고객사의 품질 관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열연공정 내 가열 및 냉각시 정밀한 온도 관리가 가능한 설비를 신·증설하고, 강판이 전면에 걸쳐 울림이 없이 평평함을 유지토록 정정 능력도 증강했다. 아연도금강판만을 생산하던 광양 7CGL을 AI-HPF용 소재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해 기존 냉간성형용 기가스틸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열간성형용 제품까지 다변화시켰다.

포스코의 기가스틸은 기존알루미늄 소재 대비 3배 이상 높은 강도에 성형성과 경계성까지 겸비해 국내외 주요 자동차사의 신차 모델에 꾸준히 적용되고 있다.

주로 외부 충격 시 변형을 최소화해야 하는 차량 바디 부위나 차체 중량을 지지하는 현가장치 등에 적용돼 내구성과 안전성은 물론 15~30%의 중량 감소로 연비 향상을 통한 주행거리 증가, 배출가스 감

축 효과 등을 입증했다. 소재 생산에서부터 부품 제조 시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알루미늄의 25%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

포스코는 차량 내 기가스틸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자동차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된 설비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강종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광양제철소는 1987년 4월 첫 쇳물을 생산한 이후 연간 950만 톤의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전문제철소로 거듭났다"며 "이번 기가스틸 100만톤 생산체계 구축은 포스코가 급성장하는 뉴모빌리티 시장에서 친환경차 소재 전문 공급사로서 글로벌 우위에 확실하게 서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여수, 해양관광도시 브랜드 '대상'

비대면·온택트 힐링여행 등 만족·기대·잠재 수요 확보

여수시가 '제15회 2021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7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표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여수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브랜드 중 1차 조사를 통해 63개 후보에 선정됐으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받아 해양관광도시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힐링여행, 온택트 랜선여행, 웹드라마를 할

용한 홍보 등으로 여수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과 기대, 잠재 수요를 확보한 결과로 파악된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수관광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 청정여수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ICT 뉴미디어와 4차산업시대 트렌드에 대응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으로 여수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만 가을정원 조성

정원역·국제습지센터 새 단장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을정원 만들기 여념이 없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정원역(스카이 큐브) 광장에 이야기가 있는 가을 국화정원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는 숲속 느낌의 휴게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역 광장은 '가을만끽 순천만 여행'이란 콘셉트로 가을이 오니 설레임, 가을바람에 물든 하늘, 금빛 물결이 흐르는 낭만역을 지나서 스카이큐브를 타고 순천만으로 가는 여정으로 연출했다.

정원역 광장 가을정원의 첫 입구 공간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맞이 장소로 기차역 분위기의 화려한 꽃 조형물과 기차역장 복장을 한 순천 캐릭터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와 역사 등을 심어 낭만 가득한 정원을 연출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는 로비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단풍나무 씨앗 모양의 잎이 달린 나무 조형물과 주변에 숲속 느낌의 작은 정원을 조성했다. 4m 높이의 나무 조형물은 주변 식물들과 어울려 건축물의 딱딱함을 완화해주고 허부는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구례군 상반기 목조주택 짓기 체험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건물이 무인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나무로 만든 세상' 무인카페 운영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등 일상서 활용 접목 상생효과

구례군이 목조주택을 '나무로 만든 세상' 무인카페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무로 만든 세상'은 지난 상반기 목공예기능인양성 교육의 하나로 추진된 목조주택 짓기 체험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주택으로 판매량이 그윽한 힐링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목조주택 짓기 양성교육은

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들이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갖고 매주 토요일·일요일 12주에 걸쳐 추진됐다.

교육생들이 직접 연장을 사용해 난이도 있는 목공 기법으로 시공한 목조주택은 약 20㎡의 규모로 완성됐다.

지난 7월 완성된 목조주택은 이번에 구례군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체험객과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무인카페 '나무로 만든 세상'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례군은 목공예기능인양성 교육의 하나로 추진된 완성된 목조주택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체험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과 생활 활용이 접목돼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구례군은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교육생들의 열정과 노력, 맘으로 만들어진 목조 무인카페가 구례군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목공 교육과 휴식을 전하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군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양한 체험 교육을 추진해 연간 5,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고흥,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 선정

고흥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의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권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79개 지자체가 신청해 고흥군을 포함한 3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고흥군은 지역공동체 '문화모뎀'과 문화도시센터와 협업을 통해 '목

실신의 자전거에 예술로 모데다'라는 주제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고흥 출신 목일신 선생의 작품을 재해석하고, 나로우주센터의 첨단산업을 활용한 콘텐츠로 문화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뒀다.

프로그램으로는 ▲아카이브 전시 '달나라 간 목일신의 자전거' ▲목일신 시극 '누가 누가 잠자나' 영화·연극 공연 ▲우주로 쏘아 올린 동심 ▲'목일신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이 펼쳐질 예정이다.

총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과 함께 기획서를 기획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진정한 주민들의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진준언 기자

내년 생활임금 지급 1만 원 진임

여수시 2022년도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처음으로 진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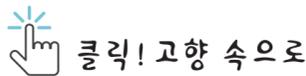
여수시는 최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지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 생활임금 9,640원 보다 360원이 늘어 3.7%가 증가한 것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84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직

종 임금 인상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지역 내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총 1,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 1만 원대 진임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보성교육청, 제로웨이스트 실천 캠페인

보성교육지원청이 최근 보성향토시장 일원에서 보성학부모회 연합회 주관으로 제로웨이스트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높이고 비닐봉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보성학부모회 연합회는 직접 광목주머니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지역민에게 배부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보성학부모회 연합회 문영미 대표는 "지역민과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보성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전혀 보성교육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광양소방, 화재 없는 안전마을 재 정비

광양소방서가 최근 진월면 구동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에서 먼 거리, 주택밀집지역 등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어려운 마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됐다.

현재 광양시에는 19개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지정됐으며, 구동마을은

2011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되고 10년이 경과돼 노후된 주택용소방시설 등의 교체가 필요했다.

최현경 광양소방서장은 "앞으로도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자율관리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시의회, 청년 일자리 현장간담회

순천시의회 청년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가 최근 청년들과 함께 하는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 일자리, 청년 커뮤니티 공간,

청년지원 정책,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호 위원장은 "정부의 청년정책과 순천형 청년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청년일자리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건전한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